

이번엔 꼭 진실 밝힌다...5·18진상조사위 활동 개시

조사위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행불자 등 7개 사건 집중조사
올해말까지 사전 조사 마무리
내년까지 과제별 보고서 완료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활동 일정

년도	분기	단계별 목표
2020	1분기	조직 정비/과제 검토
	2분기	과제 확정/자료 검토/증언 확보 준비
	3분기	1차조사(실지조사 및 증언 확보)
	4분기	2차 조사/예비보고서 작성
2021	1분기	과제별 보고서 작성/3차 조사
	2분기	과제별 보고서 작성/4차 조사
	3분기	종합보고서 작성 준비
2022	4분기	직권조사 보고서 완료
	1분기	종합보고서 초안 완료
2022	2분기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 완료

과제 설정, 사전 조사 마무리 작업등을 진행한다.

조사위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조사관 등 조사위 전체 인원들의 소양교육과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실지 조사와 증언 확보 준비를 거치고 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2년 차인 내년부터는 본 조사 활동을 통한 과제별 보고서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 기간에는 본격적인 직권조사와 신청 조사가 실시되고, 종합 국가보고서가 만들어질 준비 작업 등이 이뤄지게 된다. 피해자·가해자·목격자·전문가 대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 추구에 있다"며 "이번 진상 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로 국민과 함께, UN 등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일빌딩 245' 개관...헬기사격 영상 관람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단장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가 11일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됐다. 시민들이 9층과 10층 벽면에 헬기사격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영상을 관람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文정부 출범 3년' 광주·전남 공약사업 이행률 83%

59개 중 6개 완료 43개 추진
군공항 이전 등 10개 헛바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흑산도 공항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과 5·18 정신의 현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헛 바퀴만 돌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과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 또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및 의회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지역민 여론 결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도가 분류한 대통령 공약사업은 모두 59개로 6개는 완료됐다.
43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개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

업 수 대비 이행률은 83.1%이다. 광주는 지역 공약 13개, 광주·전남 상생 공약 8개, 영호남 상생 공약 1개 등 22개 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2022년까지 소요 예산 재원은 국비 2조 145억원에 포함해 5조 2574억원이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을 정상 추진, 군 공항 이전 사업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2건을 추진 예로 사업으로 구분했다.

광주 군 공항 사업은 국가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인 전남 지자체 반발이 강해 '기부대양어'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제21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남도는 43개 세부사업 가운데 5건은 지역 공약 13개, 광주·전남 상생 공약 8개, 영호남 상생 공약 1개 등 22개 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최근 법안 설립을 마친 한전공대 설립 사업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 사업을 완료 사업으로 분류했다. 또한 실시 설계 예산이 반영된 해경 서부 정비장 유지, 광양항 수역 정비,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2단계 건설,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내 해양교육원 설립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흑산도 공항 건설, 해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목포 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천년 기념 영상강 유역 고대 문화관 개발 사업 등 추진은 지연 사업으로 분류했다.
전남지역 공약사업 소요 예산은 국비 9조 9719억원 등 18조 7513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치원, 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고3 20일 등교

클럽발 집단감염에 교육계 혼란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등교일이 예정보다 일주일씩 늦춰지면서 학생은 물론 교육계 구성원 전체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전국 각 지역으로 이태원 클럽발 노출자가 분산된 데다 위험도 검사를 계속 진행중인 상황임에 따라 높은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3학년 등교일은 13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0일에서 27일, 고1·중2·초3~4는 27일에서 달을 넘겨 6월 3일, 중1·초5~6은 6월 1일에서 같은 달 8일로 등교일이 바뀌었다. 등교가 다시 연기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이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이다. 교육당국

은 고3 학생들의 등교 연기로 인한 대입 일정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수시모집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사가 학생을 관찰·평가한 기록'인 학생부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간고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수시모집 준비생들에겐 부담이다. 14일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가 20일 이후로 연기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나 중학교 1학년생, 고교 1학년생 등 올해 한 단계 위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역시 등교가 늦어져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등교 연기로 올해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아예 못 갈 가능성이 커진 점도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의 등교 재연기 방침이 나오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벌써 몇번째 등교 연기인지 화가 난다"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출도 삼가며 등교수업을 위해 준비해온 보람이 클럽 집단감염에 다 날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에서는 등교연기가 아쉽기는 하지만 최선의 조치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살 유치원생을 둔 한 학부모는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개학이 늦더라도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설계사와 시공사들이 뜻을 모아 전일빌딩245 개관을 축하합니다.

건축 | 주식회사 삼진종합건설
통신 | DAEDUK 주식회사 대덕지에스
전시 | ARTEC 주식회사 아텍
소방 | SSEP (주)성신전력
전기 | JIN MYEONG (주)대운전력
설계 | JUNGLIM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ISP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전시관 내부 전경

